

9. 지역 핵심산업 육성

충남TP 정책기획단 이상호 연구원

1. 대내외 여건 변화

□ 철강

- 최근 세계 철강산업은 중국의 경제력 부상으로 원료 및 시장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M&A를 통한 통합화도 가속화되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. 특히 세계 철강 수요의 급증에 따라 원료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국제 원료가격 상승도 지속될 전망
- 우리나라 철강산업(2007년중 부가가치의 대GDP 비중 2.5%)은 최근 3년간 성장률(2005~2007, 3.5%)이 그 이전 5년간(2000~2004, 6.2%)보다 둔화되면서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활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
- 철강산업은 타 산업에 활용되는 전방연쇄효과 및 총생산유발효과가 비교적 커서 경제성장의 중추를 담당. 그러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철강관련 제품의 수출입차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

□ 석유화학

- 중동/중국 및 동남아 신설비 완공 및 가동 지연,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 정책 추진, 선진국 설비의 내수 상황에 맞춘 저율 가동 등으로 아시아 기대 이상의 상황
- 상반기, 구미 석유화학 경기는 심각한 수요위축으로 상당수의 경쟁력 없는 설비들이 꺼진 상황에서 수요가 회복되면서 빠른 회복세
- 한국기업은 지리적 잇점과 높은 수출비중, 다양한 차별화 그레이드로 중국시장 특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, 환율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 기록

2. 현황

- 2009년 현재, 충남의 제조업 4대 핵심 산업 (철강, 자동차, 디스플레이, 석유화학)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대비 철강 30%, 자동차 9.6%, 디스플레이 53%, 석유화학 30%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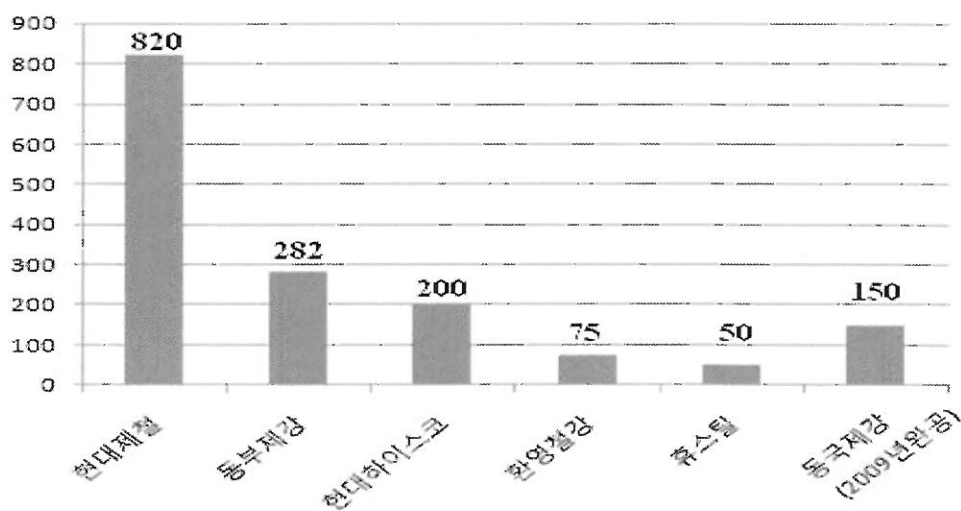
□ 철강

- 표에서와 같이 2006년말 기준으로 현대제철 등 5 개업체가 연간 총 1,427만 톤 생산 중이며, 2009년 완공 예정인 동국제강의 예상 생산량까지 합산할 경우 총 1,577 만 톤에 이를 예정으로 급격한 국제적 규모의 단지가 완성되어가고 있고, 철강 연관업체는 당진군에 등록한 총 사업체의 26.2%인 150여개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

[충남지역 철강업체 및 현재 연간 생산량 현황]

총:1,577만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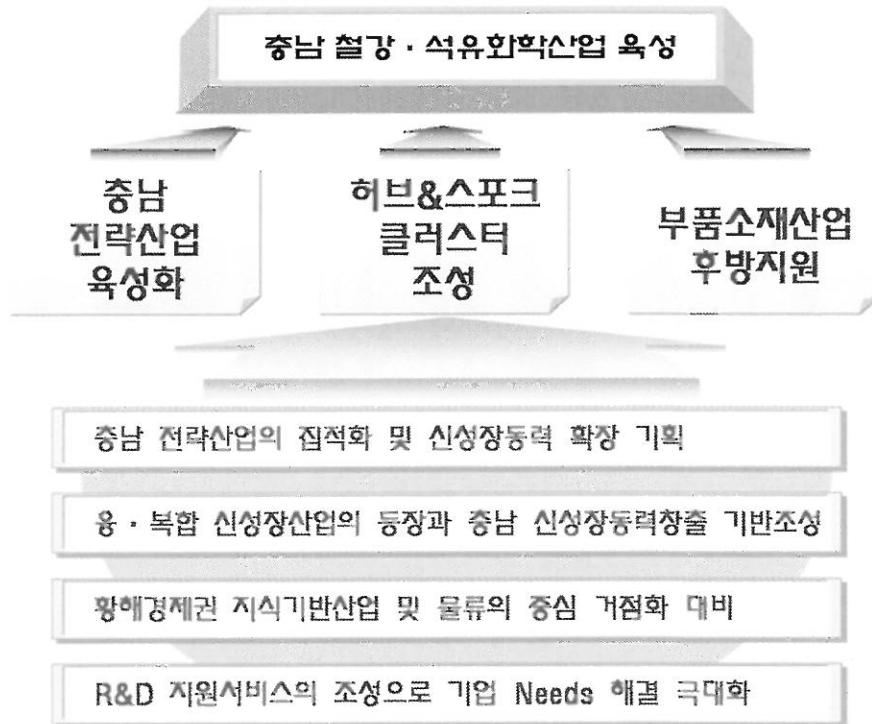
(단위: 만톤)



□ 석유화학

- 현재 서산시 주관으로 대산임해 산업지역 준산업단지 지정(위치: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, 대죽리 일원, 면적: 5,443,727㎡(약1,646,727평) 및 개발 계획에 따라 대산 임해 생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을 조사 중이며, 이는 석유화학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소재 연관 산업 유치 및 사업부지 정비를 통한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, 소규모업체 입지에 따른 난개발방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모,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, 물류기반시설 및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전략 수립 중에 있음
- 대산임해 준산업단지 내 제3석유화학단지는 에틸렌기준 총생산능력 연간 168만 톤에 달하는 3기의 납사분해공장과 관련 계열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 합성원료 분야이고 주변 중소기업들도 1차 원재료를 가공하는 수준의 범용 소재 부품업체가 주종임

3. 목표(비전)



- 대산임해 석유화학단지 연계·자원순환형 첨단부품 정밀화학소재 기반구축
 - 석유화학 Downstream 산업 테크노폴리스 조성
- 충남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 서북의 전기·전자 및 자동차 부품소재 연계를 위한 석유화학 원료기반 정밀화학 그린프로세스 IT융합 첨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
- 당진군 친환경교역형 철강산업 기업도시 기반 구축
 - 충청권의 최첨단 연구 환경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충남 IT융합 첨단소재 중핵기업 육성, 세계적 연구거점, 최고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첨단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형성
-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제도약 기반구축 및 거대 해양 구조화, 로봇, Hybrid 자동차, 국토 효율성 제고, 환경, 삶의 질과 안전(SOC 산업, 신재생 에너지), 초고압/고온소재(연료전지/에너지 플랜트) 및 IT Device용 핵심금속 소재 등 연관산업의 발전추세에 대응하는 고기능성 금속 소재개발

4. 정책방향

□ 철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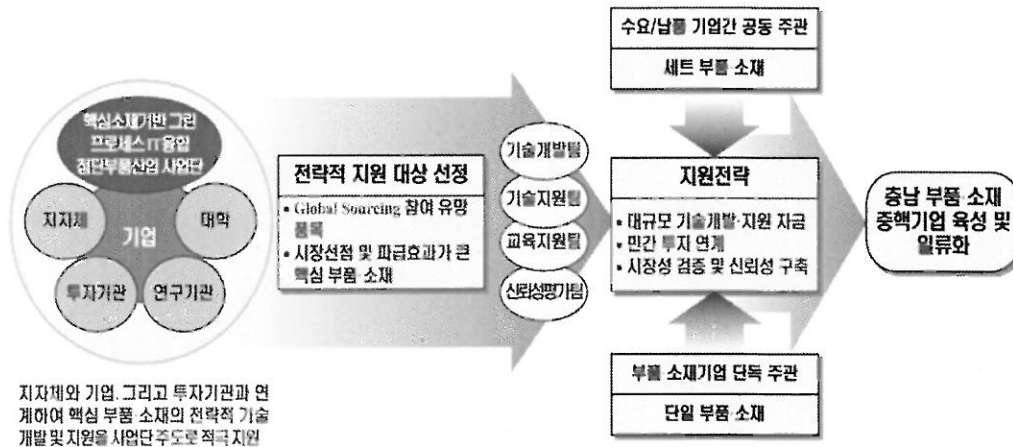
- 항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충남 서북부지역에 철강·금속산업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규모 측면에서 글로벌 최첨단 산업으로, 국가적인 경쟁력 기여와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적인 기술 및 사업지원에 대한 기획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
- 화석연료 및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철강산업에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경우 산업전반에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며, 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함.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뿐만 아니라 생산성, 환경성 및 수익성을 모두 포함하고 연계된 형태로 발전하여야 함

□ 석유화학

- 충남 서산의 대산 임해 단지의 석유화학단지 연계·자원순환형 첨단부품 정밀화학소재 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 강화 필요
- 정밀/융합화학 신소재 개발의 선점을 위한 협력기구 필요
- 충남 석유화학산업의 특화를 위한 고부가 특화기술 개발 선점 필요
- 충남 전략산업 기술정책 추진방안
 - 중국을 비롯 후발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, 이러한 원칙하에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가야 함
 -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수요를 확대, 창출하여 내실을 다져야 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, 중동과의 경쟁,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등에 따라 자체 원천기술 개발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충남의 석유화학산업의 전략산업화는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울산, 여수 등과는 다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

5. 추진전략

- 충남지역을 기준으로 대내외 환경분석(세계적인 개발 동향, 최신기술의 연구동향, 미래 수요 예측 등 참여기관들의 공동조사, 공동토론) → 정보창출 → 전략기획(지역의 산·학·연간 이해관계와 니즈의 상호조정 후, 정부연계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정부·민간공동과제 기획) → 핵심역량구축·지원(기술개발팀과 기술지원팀으로 역할 분담체제구축)으로 사업화함



[첨단 부품산업 육성사업 추진전략]

- 충남 핵심소재기반 첨단부품산업 사업은 새로운 사업 정보창출을 위해 공동조사, 공동토론을 위한 탐색공동체(Search Community), 산·학·연·관간의 이해관계와 니즈의 상호조정을 위한 기획공동체(Planning Community), 사업실시단계에서 참여 주체 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위한 연구공동체(Research Community) 등을 충남지역내의 자동차 R&D 부품센터, 철강소재 및 석유·정밀화학소재 업체 및 연구기관,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사업 추진단을 구성 운영함
- 각 지역별 기업 주변의 대학, 연구소,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탐색 → 기획 → 실행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 및 안정된 기술개발/지원의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중간 R&BD와 C&D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산업계 중간 조직인 연구합작기업(기술이전 전담기업)을 설립하여 지역기업의 니즈를 해결하도록 함